

【논문】

노자의 유무관 고찰

김명희

【주제분류】 우주론, 본체론

【주요어】 도, 무, 유, 모자, 본체

【요약문】 노자의 글 체계는 무-유-만물의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이 중 ‘무’와 ‘만물’에 대한 해석은 비교적 통일된 반면 ‘유’에 대한 시각차는 현저하다. 그리하여 현재 논의되어 있는 노자의 도 개념은 논의자들에 따른 부분적 해석은 가능하나, 전체를 관통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에 필자는 노자 글 전체를 관통하는 새로운 해석 틀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통일된 하나의 해석 틀을 갖기 위해서는 『노자』 속의 ‘무’와 ‘유’개념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논리적 모순 없이 전개된다는 전제하에 출발한다. 그리하여 만물의 입장에서 보면 ‘무’와 ‘유’는 함께 본체로 상정되어 도는 단일 개념이 아닌 ‘무’와 ‘유’라는 복합 개념이 된다. 더불어 도에 대한 정의도 무가 유를 낳아 모자(母子) 관계를 이루고, 그러면서 이 둘은 또한 서로가 서로의 존재원인이 되어 함께 만물을 생하는 것으로 본다.

이것을 1장, 2장, 11장, 25장, 40장, 42장의 우주론적 성격이 강한 글들에 적용·관통시켜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해 보았다.

I. 들어가는 말

노자는 중국철학사에서 ‘도’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우주의 존재와 운동을 설명하였다. 노자의 ‘도’에 대한 설명 체계에는 ‘無’와 ‘有’가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있어야 노자의

도에 대한 개념이 완성된다 하겠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활발히 연구해 왔다.

‘無’개념에 대한 연구에서 ‘無’는 대체적으로 본체 또는 도로 통일된 반면, ‘有’에 대한 해석은 극과 극으로 나뉜다. 넓게는 ‘유’를 도에 속한 것으로 해석하는 이¹⁾와 피생성물로 해석하는 이²⁾로 나뉜다. ‘유’를 도에 속한 것으로 보는 견해는 또 다시 대략 다음 세 가지로 개괄된다. 첫째, ‘有’와 ‘無’를 ‘도’의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보는 견해, 둘째, ‘道’, ‘有’, ‘無’를 동일하다고 보는 견해, 셋째, ‘도’는 ‘無’이고 ‘有’는 천지라고 보는 견해이다.³⁾ 그러나, 엄밀히 보자면 해석자들은 『노자』 글의 일부 내용, 예를 들어 1장이나 40장, 11장 등의 특정 장을 취해 가지고 위의 견해들을 적용하고 있고, 때로는 각 장에 따라

1) 이 글에서는 주희와 풍우란을 예로 들겠다. 주희는 노자의 ‘有’를 태극(리)으로 보아서 ‘도’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도’를 ‘無’이면서 ‘有’로 보는 유가 입장에서 노자가 ‘有’와 ‘無’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본 것(有生於無)에 대해 비판한다. 이에 대해서는 조민환, 『주희의 노자관』, 『유교사상연구』 7집, 한국유교학회, 1994; 조민환, 『주자의 노자관』, 『동양철학연구』 제24집, 동양철학연구회, 2001. 등을 참조할 수 있다. 풍우란도 ‘유’를 도로 보는데, 세 편의 중국철학사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유’를 ‘사물’로 보기도 하고, ‘도’와 동일시하기도 하며, 또한 ‘도’의 한 측면으로 보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김태용, 『『도덕경』의 ‘유’개념에 대한 소고-풍우란의 해석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문화연구』 제48집, 2010. 을 참조하기 바란다.

2) 왕필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왕필의 ‘유’개념은 고유명사가 아닌 우주자연의 온갖 사물을 포괄하는 총체로서의 ‘유’개념이다. 왕필의 유개념에 대해서는 이권(『노자의 無』, 『도교문화연구』 제28집(2008), 59쪽)의 群有, 즉 만물로 보는 견해와 임채우(『『노자』 11장을 통해 본 노자의 有·無觀』, 『철학』 제59집, 1999)의 ‘있음’과 ‘없음’으로 보는 견해를 참조할 수 있다.

3) 김태용, 위의 논문 222쪽; 오상무, 『『노자』의 有, 無, 道の 관계 再論』, 『동서철학연구』 제36호(2005), 246쪽.

그 외 견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노자』에서 ‘有’와 ‘無’를 통해 ‘도’를 설명해내는 데는 크게 세 가지 관점이 있어 왔다. 첫째는 본체론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고, 둘째는 40장의 “有生於無”와 42장의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을 바탕으로 우주생성론적인 시각에서 無와 有를 해석하는 것이며, 셋째는 가치론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이다.”(김운경, 『이충익의 『椒園談老』에 드러난 有無觀-왕필 『노자주』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도교문화연구』 제28집, 251쪽)

다른 견해들을 적용하기도 하여 ‘누구는 어떻게 본다’라고 정확히 구분 짓기도 어렵다. 이것은 여러 견해들이 부분적인 해석 틀은 제시하고 있으나 전체를 관통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새로운 해석 틀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필자는 노자의 ‘無’와 ‘有’ 개념이 때로는 현상계의 ‘없음’과 ‘있음’의 의미로 쓰일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주론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견해에 찬성한다. 학자들 중 많은 이들도 노자의 ‘유’는 우주론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노자 글을 우주론적으로 해석하는 합의된 틀은 아직 없다. 특히, 우주론적 성격이 강한 1장, 2장의 ‘有無相生’, 25장의 ‘有物混成, 先天地生’, 40장의 ‘天下萬物生於有, 有生於無’, 42장의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필자는 위에 언급한 노자의 우주론 관련 장들이 정합성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의 해석 틀로 꿰어져야 한다고 보고, 위의 장들 속에 있는 ‘무’와 ‘유’개념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서로 간에 논리적 모순이 없다는 전제 아래 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필자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개진하기 위해 먼저 40장의 ‘天下萬物生於有, 有生於無’에서 출발하여 ‘무’와 ‘유’에 대한 개념을 확정하고, 그 확정된 개념으로 1장과 25장에서 해석을 시도하여 그 의미를 정확히 하고자 한다. 그리고 42장에서는 여태까지 논의된 개념에 대한 정합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2장 ‘유무상생’의 우주론적 해석을 시도 하겠는데, 그 이해를 위하여 11장을 보조 장으로 취하여 논의하겠 다. 그리하여 노자는 ‘無’와 ‘有’를 모두 ‘도’로 인정하여 두 개의 보편자를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둘의 관계를 모자 관계로 개념 지었으며, 또한 ‘有’와 ‘無’가 서로의 존재원인이 되고 있음을 논해 보겠다.

II. ‘無’와 ‘有’는 모자(母子) 관계로서 함께 ‘도’에 속한다.

1. ‘無’와 ‘有’는 모자 관계이다.

노자 글 40장에서는 도와 만물의 관계를 우주생성론적인 차원에서의 계보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40장 ; … 天下萬物生於有, 有生於無.

천하 만물은 ‘有’에서 생하고 ‘有’는 ‘無’에서 생한다는 의미다. 내용을 도식화해보면 우주생성은 ‘無 → 有 → 萬物’의 체계로 정의된다. 여기서 ‘무’는 학자들 간에 ‘도’로 견해들이 모아지고 있고, ‘만물’은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무’와 ‘만물’의 가운데에서 가교역할을 하는 ‘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여러 갈래로 나뉜다. 이 ‘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유’는 해석하는 이에 따라서 ‘도’와 ‘피생성물’이라는 양극으로 나뉘는데, ‘유’를 ‘도’로 인정하게 되면,⁴⁾ ‘무’와 ‘유’ 모두 ‘도’가 되므로 ‘도’는 둘이 된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무’와 ‘유’를 ‘도’와 동일시하여 ‘異名同謂’로 보는 이도 있고, ‘도’의 양 측면으로 해석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노자는 ‘天下萬物生於有, 有生於無’라고 하여 ‘무’와 ‘유’는 이명동위도 아니요, ‘도’의 양 측면을 칭하는 것도 아닌 ‘무’가 ‘유’를 생하는 모자 관계로 말하고 있다. 그런데 모자 관계로 이루어진 ‘무’와 ‘유’는 만물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모두 ‘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것을 한 마디로 정리해 보면 노자가 말하는 도는 ‘무’와 ‘유’로써 서로 모자 관계를 이룬다는 것이다.

4) 주석1 참조, 그 외 여배림이 ‘無’와 ‘有’는 함께 ‘도’라고 천명하고(여배림·이이, 박종혁 편역, 『도덕경에 대한 두 개의 강의』, 서해문집, 2000, 46쪽), 김충열도 ‘無’와 ‘有’를 도의 양면으로 본다.(김충열, 『김충열 교수의 노자 강의』, 예문서원, 2004, 135쪽)

보편자, 즉 ‘도’가 둘이라는 개념은 결코 보편적이지 않다. 그러나 노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 물론 ‘생’을 논리적 생으로 해석하거나,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여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그렇게 되면 노자 글 전체를 관통할 수 없어 필자는 『노자』의 글자 그대로 시간적 생으로 보고 논제를 풀어보려고 한다.

노자는 왜 ‘무’와 ‘만물’ 사이에 ‘유’라는 존재를 도로 상정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리해야만 하는 당위성 내지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다음을 상정해 보았다. 첫째, ‘無’로서는 만물을 생성할 수 없다. 즉, 도의 근원은 ‘無’이지만, 만물을 생성시키기 위해서는 ‘有’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만물 생성은 ‘유’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중간적 성격의 ‘유’가 없이도 만물 생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40장의 ‘天下萬物生於有, 有生於無’는 ‘天下萬物生於無’라고 쓰여야 한다. 그리고 뒷장에서 자세히 논하겠지만 42장의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에서도 ‘有’가 생성되는 구체적 과정 없이, ‘道生萬物’ 혹은 ‘無生萬物’이라는 글로 제시되거나 그러한 의미가 담긴 글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자가 생각하는 도는 ‘무’가 ‘유’를 낳아서 ‘유’에 의하여 ‘만물’ 생성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無’와 ‘有’는 각각 다른 특성 내지는 상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둘의 특성이 같다고 하면 굳이 ‘무’가 ‘유’를 낳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둘의 특성은 어떻게 다를까?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논해질 42장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유’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음’과 ‘양’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대대 관계가 성립되는 반면, ‘無’는 글자에서 암시되듯이 상반된 특성이 없는 중간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자의 도는 ‘無’가 특성 내지는 상태가 다른 ‘有’를 낳아 만물을 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無 → 有 → 萬物의 글 체제 속에서 모자관계로 설정된 도 개념이 논리적 모순 없이 1장, 25장, 42장 속에서 전개됨을 살펴보자.

2. ‘無’와 ‘有’는 함께 ‘도’이다.

제1장 ; ① 道, 可道, 非常道. 名, 可名, 非常名.

② 無, 名天地之始. 有, 名萬物之母.

… ③ 此兩者同, 出而異名, 同, 謂之玄. 玄之又玄, 衆妙之門.

노자의 도에 대해, 특히 1장의 도의 개념에 대한 영향력은 왕필이 단연 으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왕필의 도 개념에 대한 재론을 통해 필자의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왕필은 『노자』 1장에 대한 주석에서 ‘도’를 ‘不可道, 不可名(도는 말할 수 없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이라고 천명하여, 노자의 도를 형이상학적 실체로 밝혀 놓았다.⁵⁾ 이러한 ‘도’에 대한 개념 정의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어 이천년이 다 되어가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자주』의 ‘不可道, 不可名’이라는 ‘도’에 대한 개념 정의는 『노자』 1장 ① ‘道, 可道, 非常道. 名, 可名, 非常名’을 해석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쳐, 왕필이후 대체적으로 ①에 대한 해석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고,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⁶⁾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여기에 견해를 달리한다. ‘不可道, 不可名’이 ①에 대한 해석이 아니고, ‘도’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정의라고 한다면 필자도 당연히 공감한다. 왜냐하면 인간이 생각하는 보편자는 무엇이라 말해 질 수 없고, 이름 붙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알아보고자 이러저러하게 의견을 내놓기 때문이다. 하지만 ‘不可道, 不可名’이라는 전제하에 ①이 해석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 오히려 왕필의 생각과는 반대로 노자는 지금 무엇이라 이름 붙일 수 없는 그 도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본인이 개념 짓고 있는 ‘道’에 대해 그 이름을 말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

5) 왕필, 『노자주』, 제1장 “可道之道, 可名之名, 指事造形, 非其常也. 故不可道, 不可名也……”

6) 노자, 이강수 역, 『노자』, 길, 서울, 2007, 37쪽. 해석 인용

런데 그 말하고자 하는 ‘道’와 ‘名’이 보통 여태껏 회자되던 것이 아닌 다른 차원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전제하는 것이라고 본다.⁸⁾ 필자의 입장에서 ①②를 함께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내가 道를 (너에게) 말하려고 하는데, 이 道는 (네가) 늘 알고 있던 그런 도가 아니다. 그 이름을 칭하려고 하는데, (네가) 늘 알고 있는 그러한 (의미의) 이름이 아니니, ‘無’는 天地之始를 말하는 것이고, ‘有’는 萬物之母를 이름하는 것이다.”

②의 ‘天地之始’와 ‘萬物之母’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 다음과 같다. ‘천지’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하늘과 땅이다. 하늘과 땅은 만물 속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런데, 노자는 ‘천지지지’는 ‘無’로, ‘만물지모’는 ‘有’로 분리시켜 놓았다. 이것은 천지로 표현되는 하늘과 땅은 특별히 ‘無’가 담당하고, 그 외 ‘만물’은 ‘有’가 관여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따라서 ‘천지지지’의 천지는 현상 속에 나타

7) 여기서 ‘名’이라 함은 물론 상징성을 띤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8) 여기에 대해서는 김충열 교수도 필자와 같은 의견이어서 그 내용을 소개 해본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왕필이 주에서 ‘불가도, 불가명’이 상도(常道)라고 주장하는 대목이 석연치 않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왕필의 이 말에 낯이 나가서 그저 ‘도’는 말할 수 없는 것,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그러한가? 그렇지 않다. 얼마든지 글자를 만들 수 있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다. 자지왈도(字之曰道)는 무엇이고, 강위지명(強謂之名)은 무엇인가? 이 또한 가도(可道)가 아니고 가명(可名)이 아닌 것인가? 필자의 생각에 이 대목은 백서 『노자』에서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할 때 제일 앞에 내세운 ‘도’를 종래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학파에서 쓰던 ‘도’ 개념과 구분 짓는다는 의도에서 한 말인 듯하다. “지금까지 너희가 떠들고 불려온 그 ‘도’는 사실상 현상화된 도(형이상학적인 도)이고 내가 이제부터 말하는 ‘도’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도가 아니다. 그러므로(혼돈이 생기므로) 너희들이 떠드는 그 이름(언어)으로는 지칭할 수 없으니, 이제부터는 나의 칭위 방법에 따라 이해해 나오”하는 주문인 것이다. 그래서 자지왈(字之曰)이니 강위지(強謂之)니 하는 단서를 붙인 것이다. 이제까지 없던(생각지 못했던) 것에 대해 처음으로 이름을 붙이려니까 그럴 수밖에 ……” 김충열 지음, 『김충열 교수의 노자강의』, 예문서원, 2004, 130쪽.

나는 하늘과 땅이 아닌 상징적 문자로 보아야한다.

그러면 천지는 무엇으로 보아야하는가? 필자는 이것이 ‘음’과 ‘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이 ‘음’과 ‘양’으로 상징되는 ‘천지’는 뒤이어 나오는 만물지모인 ‘유’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가 될 42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따라서 ‘無, 名天地之始’는 무가 ‘천지(有)’의 시초, 즉 ‘유’를 생하는 모체임을 말하는 것이고, ‘有, 名萬物之母’는 無에서 생하여진 有가 만물을 생하고 기르는 어미가 됨을 말하는 것으로 본다.

이 ‘무, 명천지지지’, ‘유, 명만물지모’는 마치 40장의 ‘유생어무’를 역으로 바라본 것과 같다. 1장이 ‘무 → 유 → 만물’의 체계로서 위에서 아래로 표현한 것이라면 40장은 역으로 ‘만물 → 유 → 무’의 체계로서 아래에서 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구조는 뒷장에서 논해질 42장의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물’의 구성 체계와 동일하다.

이같이 논의한 무 → 유 → 만물의 글 체제와 무·유의 모자 관계 설정을 ‘此兩者同, 出而異名’에서도 계속 적용하여 보자.

③의 ‘양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⁹⁾ 필자는 여태까지 펼쳐온 논지대로 ‘양자’를 ‘無’와 ‘有’로 본다. 그리하여 연이어 설명되는 ‘동출이이명(같이 나왔으며 이름이 다르다)’과 ‘동위지현(함께 ㄷ이라고 불린다)’의 의미에 맞게 ‘有’를 ‘無’와 함께 만물의 근원 자리로 생각한다. 노자에서 ‘ㄷ’은 인간의 감각을 벗어난 근원 자리에서만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有’는 ‘無’와 함께 만물의 근원으로서 인간의 감각을 벗어난 본체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40장의

9) 송대의 왕안석이 “兩者, 有無之道, 而同出於道也(양자란 有·無의 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다 같이 도에서 나왔다)”라고 말하여 ‘유’를 도로 보고 있으며, 그 외 양계초, 고행, 김충열(김충열, 『김충열 교수의 노자강의』, 예문서원, 2004, 131~135쪽 참조 및 인용), 여배림(여배림·이이, 박종혁 편역, 『도덕경에 대한 두 개의 강의』, 서해문집, 2000, 46쪽)등도 비슷한 견해를 보여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다른 의견으로는 ‘兩者’를 ‘始’와 ‘母’로 보는 왕필, ‘유육’과 ‘무육’으로 보는 하상공의 의견(노자, 이강수 역, 『노자』, 길, 2007, 38~39쪽)이 있다.

‘천하만물생어유’의 ‘유’와 1장의 ‘유, 명만물지모’에서 ‘유’를 만물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도’에 해당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무’와 ‘유’는 모자 관계로써 함께 ‘도’에 속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3. ‘有’는 ‘道’이고, ‘自然’은 ‘無’이다.

앞에서는 40장에서 설정한 개념을 1장에 적용하여 ‘有’가 ‘無’와 함께 ‘同謂之玄’으로써 도의 본체임을 알아보았다. 이 개념을 25장에도 적용하여 논의를 펼쳐보자.

제25장 ; ① 有物混成, 先天地生, 寂兮寥兮, 獨立不改, 周行而不殆, 可以爲天下母. 吾不知其名, 字之曰道.
 … ②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

①의 ‘有物’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어떤 것’의 실체는 ‘先天地生’으로 천지¹⁰⁾보다 먼저 생겼고, ‘天下母’로써 천하의 어머니이며, ‘字之曰道’라 하여 ‘도’라고 정의된다. 그러면 25장에서 말하는 ‘字之曰道’의 ‘도’는 앞의 1장과 40장에서 논의한 ‘無’와 ‘有’ 중에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혹자는 ‘無’라고 생각하는데, 그와 달리 필자는 ‘有’라고 생각한다. 그 까닭을 피력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물혼성’을 현재 대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해석처럼 ‘혼연히 이루어진 어떤 것이 있으니’로 보면 어순이 동사+주어가 된다. 이것은 ‘도’는 ‘무’ 즉, ‘무’만 ‘도’라는 정의 하에 이루어지는 해석이다. 그런데, ‘유’를 ‘도’로 인정하면 한자의 보편적인 어순에 맞게 주어+동사로 해석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그 뜻은 ‘유는 혼연히 이루어진 것이니’로 된다. 물론 동사+주어로 어순을 바꾸어 해석한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나 한자의 일반적인 어순으로 해석하여 그 뜻이

10) 1장 天地之始의 天地는 음양을 상징한 문자로 사용된 반면, 25장의 天地는 만물 속의 天地(하늘과 땅)로 구분해 보아야 한다.

명확하고 보편적이라면 굳이 어순을 어겨가며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겠는가? 더구나 ‘物’은 왕필의 초간본에서는 ‘도’라고 읽어야 할 것 같은 문자로 썼다고 한다.¹¹⁾ 도는 본래 이름이 없어 ‘물’이란 글자를 임시로 사용해 그것을 일컬었다¹²⁾는 것이니, 物 대신에 道라는 글자를 대입하면 ‘有道混成’으로써 ‘유는 혼연히 이루어진 도이다’로 해석된다. 이것이 필자가 ‘字之曰道’의 ‘도’를 ‘유’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이다.

또, 이것은 뒤이어 ‘先天地生’이라고 표현되어 천지보다 먼저 생겼고, ‘可以爲天下母’라고 하여 천하의 어머니라고 한다. 만약 이것이 ‘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40장의 ‘무 → 유 → 만물’의 체계 속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무’는 ‘유’를 ‘생’했을 뿐, ‘무’ 자체가 어디로부터 생함을 받는 존재가 아니어서 천지보다 먼저 생겨났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그리고 ‘天下母’는 40장의 ‘天地萬物生於有’에서 보듯이 ‘天地萬物’의 어미는 ‘유’이지 ‘무’가 아니며, 이것은 또한 1장의 ‘有, 名萬物之母’와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先天地生’과 ‘可以爲天下母’로 대변되는 것은 ‘無’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有’를 나타내는 것이다. ‘유’가 ‘무’로부터 생함을 받되, 천지보다 먼저 생하여져, ‘천하(천지)’¹³⁾의 어미가 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이 필자가 25장①에서 말하는 ‘자지왈도’의 ‘도’를 ‘유’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이다.

그리고 25장 마지막 구절을 통해 세 번째 이유를 들어보겠다. 25장 ②에 표현된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이라는 글의 의미는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이다. 이 글의 구성은 ‘人-地-天-道-自然’으로 그 위계질서가 있고, 제일 아래에 있는 것은 바로 위의 것을 본받고, 그 위의 것은 또 바로 그 위의 것을 본받는 것으로 설정되어

11) 노자, 이강수 역, 『노자』, 길, 2007, 117쪽.

12) 여베림·이이지음, 박종혁 편역, 앞의 책, 14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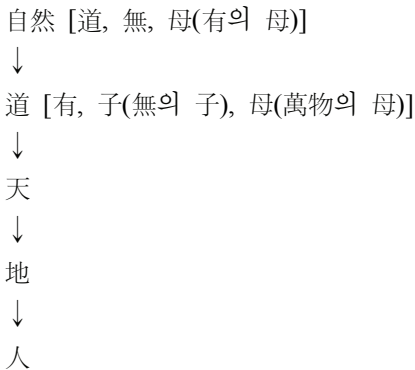
13) 초간본에는 ‘天下母’로 되어 있으나, 백서 『노자』에는 ‘天地母’로 되어 있다. 노자, 이강수 역, 앞의 책, 117~118쪽.

있다. 원래 본받는다든 것은 자신보다 뛰어난 존재 내지는 보다 나은 어떤 것을 상징하고서 사용하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人-地-天-道’까지는 그 위계질서 상으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단계이다. 하지만 가장 상위 개념에 있는 ‘自然’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人-地-天-道-自然’이라는 글의 구성 체계로 보면 ‘도’는 ‘自然’을 본받아야 한다. 여태까지의 개념상 우리는 최고 실재 존재자 내지는 최고의 가치 개념으로 ‘도’를 상징해 왔다. 다시 말해 ‘도’라는 것은 가치적으로나 개념상으로 가장 최고, 가장상위, 가장 우선하는 그 무엇인가로 여겨왔다. 그런데 그러한 ‘도’가 본받아야 하는 상위 개념인 ‘自然’, 이 ‘自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여기에 필자가 주장해온 마지막 이유가 담겨있다.

필자가 글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언급한 것이 노자의 도는 단일개념이 아닌 ‘무’와 ‘유’가 함께 도로 상징되는 복합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25장의 ①에서 제시한 도는 ‘무’와 ‘유’중에서 ‘유’를 나타내고, ‘유’가 본받고자하는 ‘자연’은 ‘무·유’의 ‘도’중에서 ‘무’를 나타낸다고 본다. 즉, ‘人-地-天-道(유)-自然(무)’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게 보아야지 ‘人’ 위에 놓여진 ‘地·天’의 서열과 ‘地·天’위의 ‘道·自然’이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앞장에서 살펴본 1장의 ‘此兩者同, 出而異名, 同, 謂之玄. 玄之又玄, 衆妙之門(이 두 가지는 함께 나왔으며 이름이 다르니, 함께 현묘하다고 일컬을 수 있다. 현묘하고 현묘하니, 모든 현묘한 것의 문이로다)’과도 상통될 수 있다.

그러면 ‘자연’이 왜 ‘무’에 속할까? 이것은 ‘유’와 ‘무’가 함께 ‘도’에 속하지만, 40장의 ‘무 → 유 → 만물’의 체계에서 보듯이 ‘유’는 ‘무’로부터 생함을 받으나, ‘무’는 더 이상 어디로부터 생함을 받는 존재가 아니다. 즉, ‘無’는 그 자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自然(스스로 그러함)’이라 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25장에서 말하는 ‘字之曰道’의 도는 25장 첫 구절에 있는 ‘有物混成’의 ‘유’가 되고, 이 ‘유’를 나타내는 ‘도’가 본받고자하는 ‘자연’은 곧 ‘무’가 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자의 도는 ‘무’라는 단일 체계로서는 설명이 되지 않고, ‘무’와 ‘유’를 모두 ‘도’로 상징하였을 때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이것은 여태까지 40장과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것을 논리적 순서에 따라 앞뒤가 가려지게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결론적으로 노자의 도는 ‘무’와 ‘유’라는 복합개념으로 설정되어 있고, 이 ‘무’와 ‘유’는 또한 ‘모자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4. 음·양·충기가 만물을 생한다.

이 장에서 논할 42장의 글도 서론에서 논한 바와 같이 1장, 25장, 40장과 함께 정합성을 이룬다는 전제하에 살펴본다.

제42장 ;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萬物負陰而抱陽, 沖氣以爲和. …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의 전개 과정은 도에서부터 시작하여 일 → 이 → 삼 → 만물이라는 점진적 파생 단계를 거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도에서 만물이 생성되기 시작하여 번다한 만물로 불어 나간다는 단순한 상징인가? 아니면 도 → 일 → 이 → 삼 → 만물이라는 변화 과정 속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먼저, 도 → 일 → 이 → 삼을 만물이 생겨나는 단순한 상징성이라고 가정해보면, 노자가 도를 설하는 그의 짧은 글 속에 상징성을 위하여 과연 이러한 전개 과정을 할애했을까하는 의문이 생긴다. 무엇인가에 대한 상징성을 나타낼 때는 그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해서 기술하는 것인데, 도를 전하는 함축된 글 속에 만물이 번다히 생겨남을 나타내기 위해서 도 → 일 → 이 → 삼 → 만물이라는 전개 과정을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납득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필자는 만물의 번성과정을 나타내기 위해 일 → 이 → 삼이라는 과정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물이 최초의 경우의 수에서 점점 많은 수로 생겨났을 것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생래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자』라는 글 자체가 만물이 생성된 그 연원을 깨달아 전하고자 하는 것인데, 만물의 개체 수가 증가함을 나타내기 위해 일 → 이 → 삼으로 그 상징성을 나타냈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노자가 일 → 이 → 삼으로 단계 설정을 한 것은 이 과정이 특별히 필요했던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道生萬物’도 아니고 ‘一生萬物’도 아니며, ‘三生萬物’이라고 논한 것은 쓰이어야만 만물을 생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만물을 생하는 三의 기저는 道에서부터 출발하여 일 → 이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지만 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 → 일 → 이 → 삼 → 만물’이라고 특별히 논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물’속에는 노자가 전하고자 하는 우주론적 중요 개념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풀이 방법도 각자의 생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서론에서 논한 바와 같이 필자는 1장, 25장, 40장, 42장이 정합성을 이루어 ‘무와 유는 모자 관계로써 함께 도’라는 전제하에 해석해본다.

먼저 노자가 우리에게 준 메시지를 살펴보면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萬物負陰而抱陽, 沖氣以爲和’이다. 노자는 삼생만물을 말하면서 만물은 음을 지고 양을 안고 충기로 조화한다고 하여 삼이 곧 ‘음·양·충기’임을 암시하고 있다. 三이 ‘음·양·충기’를 말한

다면 二는 자연적으로 ‘음·양’으로 귀결될 수 있고, 一은 ‘음·양’이 혼용한 상태로 놓여진다. 여기까지가 42장 위의 글에서 얻을 수 있는 내용이다. 이것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一 : 음·양 혼용 상태

↓

二 : 음·양

↓

三 : 음·양·충기

↓

萬物

그러면 일을 생한 ‘도’는 무엇으로 귀결되어야 하는가? 40장의 ‘천하만물생어유, 유생어무’와 42장의 위 글을 매치시켜보면 42장의 도는 ‘無’를 나타내고, ‘有’는 一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一인 ‘有’가 스스로 분화하여 陰·陽을 생하고 음·양은 충기를 생하여 만물을 생성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이르는 것이다.

음·양 혼용 상태인 一은 ‘유’로써 천지만물의 어미가 되므로 1장에서 ‘유, 명만물지모’라 하고, 이 음·양 혼용 상태를 ‘무’가 생하기 때문에 ‘무, 명천지지시’¹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무’는 25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연’으로서 ‘유’를 생하는 시발이 된다. 그리고 ‘무’와 ‘유’는 서로 모자 관계를 이루어서 만물을 생하는 본체가 되므로 1장에서 ‘차양자동, 출이이명’이라고 한 것이다. 따라서 일(음·양 혼용 상태) → 이(음·양) → 삼(음·양·충기)은 ‘유’인 일이 ‘무’로부터 생하여져서 ‘만물’을 생성하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풀어놓은 것이다.

여기까지의 관계를 도식화해보면 아래와 같다.

道 : 無, 母, 自然

↓

14) 필자는 음·양의 상징적 문자로 천지를 나타낸다고 앞의 1장 논의에서 밝힌 바 있다.

一 : 有(음·양 혼용 상태), 子, 道
 ↓
 二 : 陰·陽
 ↓
 三 : 陰·陽·冲氣
 ↓
 萬物

이와 같이 노자의 도는 하나의 개념으로 규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며 ‘무’와 ‘유’라는 복합 개념으로 존재하고, ‘무’가 ‘유’를 낳는 선후가 있으며 함께 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Ⅲ. ‘有’와 ‘無’는 서로의 존재원인이 된다.

앞장에서는 노자가 말하는 ‘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개념을 추출해보고, 이 도가 만물을 생성시키기 위해 어떤 전개 과정을 가지게 되는 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하여 ‘有’와 ‘無’로 규정지어진 도는 ‘無’가 ‘有’를 낳아 만물을 생하는 것임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도는 무 → 유 (음·양 혼용 상태인 유 → 음·양 → 음·양·충기 → 만물)의 체계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럴 경우 ‘무’는 만물을 생성하기 위한 터전으로 ‘유’를 생하고 그 작용을 다한 것이 된다. 과연 그런가? 이에 대해 노자는 다음과 같이 ‘有無相生’을 말하고 있다.

제2장 ; ① 天下皆知美之爲美, 斯惡已; 皆知善之爲善, 斯不善已.
 ② 故有無相生, 難易相成, 長短相較, 高下相傾, 音聲相和, 前後相隨. …

2장의 ①② 글은 자연계와 인류사회의 갖가지 사물과 사건이 서로 대립·의존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를 相反相成이라고 한다.¹⁵⁾ 그런데

15) 노자, 이강수 역, 『노자』, 길, 2007, 43쪽.

노자는 이 글에서 ‘有’와 ‘無’가 서로를 생한다(유무상생)고 하여 ‘유’와 ‘무’는 서로가 상대의 존재원인이 되고 있음을 말한다.

‘무’는 ‘유’를 생하고, ‘유’는 ‘무’를 생하는 것이 유무상생인데, ‘무’가 ‘유’를 생한다는 것은 40장의 ‘有生於無’에서 재차 언급되고 있어 노자의 생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유’가 ‘무’를 생한다는 것은 방금 살펴본 2장의 ‘유무상생’ 외에 다시 언급된 바가 없어 그 말하는 바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노자가 有無相生을 말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글이나 사상이 노자의 글 어딘가에는 담겨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이에 필자는 노자의 글 중에서 행간을 살펴 ‘유무상생’의 의미와 정의를 명확히 해보고자 하였으며, 42장과 11장을 주목하였다.

앞의 글에서 42장을 논하면서 ‘三生萬物’의 삼은 ‘음·양·충기’임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음과 양은 음·양 혼용 상태인 일이 자가 분화해 생성되었으므로 음·양의 생성자체와 이것이 ‘유’에 속함은 당연지사로서 여겨진다. 그러나 충기는 다르다. 충기는 42장의 ‘이생삼’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음과 양이 생성한 것이고, 그 성격에 있어서도 음양이 서로 반대의 극점을 이루어 대대의 관계를 이루는 반면, 冲氣는 음양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중간자적 성격을 가진다. 필자는 이 冲氣가 ‘無’에 속한다고 본다.¹⁶⁾ 그리하여 ‘有’에 속하는 음·양이 ‘無’의 속성을 가진 冲氣를 생성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유’가 ‘무’를 생한 것으로써 이에 대한 정합성을 보충하기 위해 11장을 예로 들어보겠다.

제11장 ; 三十輻共一轂，當其無，有車之用。埴埴以爲器，當其無，有器之用。鑿戶牖以爲室，當其無，有室之用。故有之以爲利，無之以爲用。

11장의 의미는 ‘서른 개의 바퀴살이 바퀴통 하나로 같이 모여드나니, 그 無를 만나야 수레의 작용이 있게 된다. 차진 진흙을 이겨 그

16) 이 충기 冲氣에 대해서는 왕필도 ‘빈 無의 기운’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 왕필, 임채우 역, 『왕필의 노자주』, 한길사, 2005, 196~197쪽 참조.

릇을 만드나니 그 無를 만나야 그릇의 작용이 있게 된다. 방문과 창문을 뚫어서 방을 만드나니 그 無를 만나야 방의 쓰임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有가 이롭게 되는 것은 無가 작용하기 때문이다¹⁷⁾로서 ‘有’와 ‘無’가 일차적으로는 현상계 사물의 존재와 비존재의 상대적 개념을 통하여 ‘유’와 ‘무’가 반드시 서로 어우러져야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필자는 이차적으로는 ‘有無相生’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즉, ‘有’와 ‘無’가 서로 존재 원인이 되어 주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11장에서 ‘무’의 생성은 실물로 표현되는 ‘有’, 즉 서른 개의 바퀴살과 바퀴통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을 필자는 42장의 ‘二生三’, 즉 음양인 ‘有’가 ‘無’인 冲氣를 생하여내는 하나의 예에 속한다고 본다. 서른 개의 바퀴살과 바퀴통이 만들어낸 ‘무’는 ‘유’가 만들어내지만 ‘음과 양’으로 대변되는 ‘유’에 속하지 않고, 다른 차원의 ‘무’를 생성해 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찰흙을 이겨 그릇을 만들어내지만 그릇 속의 빈곳은 ‘유’가 아닌 ‘무’이다. 그리고 문과 창도 같은 이치이다. 바퀴살과 바퀴통이 만들어내는 ‘무’, 그릇 속의 ‘무’ 그리고 문과 창도의 ‘무’는 그들이 속한 ‘유’에 의해 만들어지고 ‘유’가 빚어내는 형태에 따라 모양도 모두 다르지만 공통점은 다같이 ‘무’에 속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때 ‘유’가 빚어내는 ‘무’는 ‘도’ 본체 자체의 ‘무’는 아니다. 다만 현상 세계에서 본체의 ‘무’를 닮은, 혹은 본체의 ‘무’와 연결고리를 갖는 상징적이면서도 실제 존재하는 ‘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로 42장의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은 ‘無’로 표현되는 ‘도’가 ‘음양 혼용상태인 유’를 생하고, 이 ‘유’는 자가 분화하여 음과 양을 생하여내고, 음과 양은 또 다시 ‘무’에 속하는 충기를 생하여 냄으로써, ‘무’와 ‘유’는 서로가 서로를 생하는 동시에 서로가 서로의 존재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유무상생’에 대하여 간략히 논해 보았다. 끝으로 노자의 철학을 더 자세히 이

17) 노자, 이강수 역, 『노자』, 길, 2007, 69쪽.

해하기 위하여 ‘충기’에 대해 조금 더 부연해보고자 한다. 노자 철학에서 만물을 생하는 것은 분명 ‘유’이다. 40장의 ‘天下萬物生於有, 有生於無’를 통해서 만물을 생하는 것은 ‘유’라고 규정짓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42장의 ‘三生萬物’을 통하여 만물을 생하는 것에 ‘충기’가 관여하고 있음을 은근하면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 ‘충기’는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유’에서 자가 분화한 음·양에서 생하여졌으면서도 ‘무’에 속하는 묘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노자는 이러한 관계 설정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한 것일까? 필자가 보기에 이 같은 설정은 짧은 한 글귀 속에 깊고 많은 것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노자의 ‘충기’에 대한 설정은 ‘三生萬物’로 표현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유’가 만물을 생할 때 ‘무’도 ‘충기’를 통하여 계속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萬物負陰而抱陽, 沖氣以爲和’에서 보듯이 만물의 구조 또한 ‘음·양·충기’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구성은 만물이 ‘유’로부터 생함을 받으면서도 ‘충기’라는 존재를 통하여 ‘무’와의 연관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무’는 우주 만물의 탄생부터 존재하는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셈이 된다.

이것은 매우 독특한 발상으로써 ‘유’와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상 만물은 ‘무’가 직접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무’는 만물을 생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존재, ‘유’를 먼저 생한다. 그리하여서 ‘유’는 만물을 생하는 최고 으뜸 존재가 된다. 이때 언뜻 보기에 ‘무’는 만물을 생함에 있어 한발 물러나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유’가 ‘충기’라는 ‘무’의 속성을 가진 것을 생하게 됨으로써 ‘무’는 결국 ‘유’와 ‘만물’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묘하고도 독특한 구조를 띠게 된다.

뿐만 아니라 ‘유’는 ‘만물’을 생하므로 만물의 입장에서 보면 본체에 해당한다. 그러면서도 ‘유’는 ‘무’에 의하여 생하여졌다. 이것을 다른 각도로 보면 ‘유’는 ‘무’의 속성과 ‘만물’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중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무’와 ‘유’의 이 같은 특성 때문

에 노자는 ‘도’를 단일 개념이 아닌 복합개념으로 설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IV. 맺는 말

노자의 글에서 ‘無’와 ‘有’는 노자의 ‘도’를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핵심어이다. 이에 대한 개념 정의를 위해 우주론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1장, 2장, 11장, 25장, 40장, 42장을 중심으로, 이 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무’와 ‘유’ 개념이 모두 정합성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의미 추출을 시도해 보았다.

먼저 40장의 ‘天下萬物生於有, 有生於無’는 ‘천하만물은 유에서 생하고, 유는 무에서 생한다’고 하여 글의 체제가 ‘만물-유-무’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만물’과 ‘무’ 사이에 있는 ‘유’는 만물의 입장에서 보면 ‘무’와 함께 ‘도’에 속하고, 또 ‘무’와의 관계로 정의해 본다면 ‘무’가 ‘유’를 낳아 모자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만물-유-무’의 틀과 ‘무’와 ‘유’는 모자 관계라는 개념이 나머지 장들에도 모두 적용되고 있음을 논해 보았다.

첫 번째, 1장의 ‘道可道 非常道, 名可名 非常名’과 ‘無, 名天地之始’, ‘有, 名萬物之母’, ‘此兩者同, 出而異名, 同, 謂之玄. 玄之又玄, 衆妙之門.’을 위에서 정의한 해석 틀을 적용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면 노자가 우리에게 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도의 이름이 ‘無’와 ‘有’이며, 이 둘은 함께 도에 속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무-유-만물’의 체제와 모자 관계의 도를 읽을 수 있다.

두 번째, 25장의 ‘有物混成, 先天地生 … 可以爲天下, 字之曰道’와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을 위와 같이 적용해보면 “유는 천지보다 먼저 생하여졌고, 천하의 어머니가 되며 이를 ‘도’라고 한다”라고 된다. 또한 이 같은 개념을 ‘인-지-천-도-자연’에 적용하면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라고 하여 '도'는 '유'가 되고 '자연'은 '무'가 된다. 사실 25장은 '만물-유-무'의 틀과 '무'와 '유'는 모자 관계라는 개념이 적용되어야지 '도'가 '자연'을 본받는다는 질서의 정합성을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 이와 같은 해석 틀을 42장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에서 다시 살펴보면 '道生一'의 '도'는 '무'이고, '무'와 '만물' 사이에 '일, 이, 삼'이 펼쳐지는데, 이 '일, 이, 삼'은 '유'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는 동시에 '유'가 '만물'을 생하기 위한 미세한 준비과정임을 알 수 있다. 노자는 '三生萬物. 萬物負陰而抱陽, 沖氣以爲和'를 통해서 '삼'이 곧 '음·양·충기'임을 말해 주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는 음·양으로, '일'은 음·양의 혼융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 '일'을 음·양 혼융상태인 '유'로 보는 것은 앞장에서 논한 바와 같이 제1장의 '無, 名天地之始', '有, 名萬物之母'에서 '천지'를 음·양의 상징으로 보고 해석한 것과 그 맥락이 닿아있다.

여기까지는 노자의 도를 해석함에 있어 노자의 글이 '만물-유-무'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와 '유'는 모자 관계라는 전제하에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42장은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을 통하여 2장의 '有無相生'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방금 언급한 바와 같이 '도생일'에서 '도'는 '무'로, '일'은 '유'로 상정되어 2장의 '有無相生' 중에서 '무'가 '유'를 생하는 '無生有'를 볼 수 있는 곳이다. 이것은 40장의 '유생어무'와 맥을 같이하여 한 쪽 축을 이룬다.

그러고도 '일생이'는 '유'가 자가분화하여 '음'과 '양'을 생하고, '이생삼'에서 '음'과 '양'이 다시 '충기'를 생한다. 그런데 이 '충기'는 '음'과 '양'이라는 상반성이 없는 기로서 '유'와 달리 '무'에 속한다. 따라서 '음'과 '양'으로 대변되는 '유'는 '충기'라는 '무'를 낳는 것이다. 이것은 곧 '유생무'가 되어 2장 '유무상생'의 다른 한쪽 축을 이루게 된다.

그런데 '무생유'는 40장에서 '유생어무'라는 직접적인 거론이 있어 인식하기 어렵지 않으나 '유생무'는 40장처럼 직접적 표현이 없어 11

장을 그 보충 장으로 삼아 논해 보았다.

11장의 수레바퀴살과 그릇, 창문 등은 그 속의 빈 곳, 곧 ‘무’를 만나야 바른 쓰임이 있게 된다. 그런데 그 ‘무’는 수레바퀴살과 그릇, 창문 등과 같은 ‘유’가 각각 만들어낸 것이다. 따라서 ‘유’의 형태에 따라 각각 모양도 다르지만, 이것은 수레바퀴의 바퀴살이라는 ‘유’가 바퀴통 속의 ‘무’를 만들어내므로 ‘유생무’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하여 42장과 40장 그리고 11장을 통해서 ‘유무상생’의 이치를 들여다보았다.

이상과 같이 1장, 2장, 11장, 25장, 40장, 42장의 ‘무’와 ‘유’가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그것이 정합성을 이룰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무’와 ‘유’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무’는 ‘유’를 생하여 모자관계를 이루고 ‘만물’에 대하여 본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 ‘무’와 ‘유’는 특성이 서로 다르며, ‘유’는 ‘무’와 ‘만물’의 속성 두 가지를 지니게 된다. 그리고, ‘유’는 자가분화하여 무의 속성을 가진 ‘충기’를 생하고, ‘무’는 이 ‘충기’를 통하여 ‘만물’을 생함에 있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 만물을 생함에 있어 ‘무’와 ‘유’가 함께 한다는 것은 어느 것 하나가 없이는 만물생성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므로 이것이 노자가 도를 단일개념이 아닌 복합개념으로 설정한 이유라고 하겠다.

투 고 일: 2012. 05. 10.
 심사완료일: 2012. 07. 09.
 게재확정일: 2012. 08. 03.

김명희
 한국교원대학교 윤리교육과
 박사수료

참고문헌

- 김백희, 『『노자』 해석의 두 시각, 본체생성론과 상관대대론—관점초간 본에서 왕필주까지—』,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0.
- 김윤경, 「이충익의 『椒園談老』에 드러난 有無觀—왕필 『老子注』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道敎文化研究』 제28집.
- 김충열 지음, 『김충열 교수의 노자강의』, 예문서원, 2004.
- 김태용, 「『도덕경』의 ‘유’개념에 대한 소고—풍우란의 해석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문화연구』 제48집, 2010.
- 노자 지음, 이강수 역, 『老子』, 길, 서울, 2007.
- 여배림·이이 지음, 박종혁 편역, 『도덕경에 대한 두 개의 강의』, 서해문집, 1998.
- 오상무, 「『노자』의 有, 無, 道의 관계 再論」, 『동서철학연구』 제36호, 2005.
- 왕필, 임채우 옮김, 『왕필의 노자주』, 한길사, 2005.
- 이권, 「노자의 無」, 『도교문화연구』 제28집, 2008.
- 임채우, 「『노자』 11장을 통해 본 노자의 有·無觀」, 『철학』 제59집, 1999.
- 조민환, 「주희의 노장관」, 『유교사상연구』 7집, 한국유교학회, 1994.
- 조민환, 「주자의 노장관」, 『동양철학연구』 제24집, 동양철학연구회, 2001.

ABSTRACT

Study on Lao-tzu 老子's 'You(有)' and 'Wu(無)'

Kim, Myoung-Hee

Lao-tzu 老子's writing structure consists of Wu(無)-You(有)-All things(萬物). Here, the interpretation of 'Wu' and 'All things' is relatively identical in most studies, whereas there is a great gap among the studies about 'You'. Thus, the currently available concepts of Lao-tzu's Tao differ from each other according to the presenters, and there is no clear-cut definition applicable to the respective chapters. So I will aim to find a new method of interpretation of Lao-tzu 老子's writing by assuming the existence of a clear-cut definition.

I will conduct this study on the basis of the fact that the concepts of 'Wu(無)' and 'You(有)' of Lao-tzu 老子 are the same and suffer from no logical errors when being developed so as to set a clear-cut definition.

By doing so, from the point of view of All things, 'Wu' and 'You' are posited together as essence bases, so that Tao becomes, without being the single concept, the complex concept of 'Wu' and 'You'. Also, the definition of Tao is set in a manner that 'Wu' bears 'You' to form a mother-child relationship, and the two bring about existence by creating All things together.

In order to support my opinion, writings characterized by the cosmology in chapters 1, 2, 11, 25, 40 and 42 of 『Lao-tzu』 are referenced.

Keywords: Tao(道), Wu(無), You(有), mother-child relationship(母子關係), Noumenon(本體)